

광주시 육성 '11대 대표산업' 고용·매출 크게 늘었다

친환경차·에너지·인공지능·에어가전 등 2017년 보다 고용 87%, 매출 74% 증가

광주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온 '11대 대표 산업' 지원기업의 고용과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11대 대표산업' 선정 이후 2년간(2019년-2020년) 386개 사업 1107개 기업에 6047억원을 집중 지원했다.

11대 대표산업은 ▲친환경 자동차산업 ▲에너지 및 수소산업 ▲인공지능 및 드론산업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광융합산업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스마트 뿌리산업 ▲5G기반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 ▲김치 및 음식산업 등이다.

광주시가 이처럼 11대 대표산업을 집중 지원한 결과 지난 2017년 대비 고용인원은 1만1279명에서 2만1110명으로 87.16% 증가했다.

매출액은 5조3353억원에서 9조2799억원으로 73.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국가 통계에서도 긍정적인 결실로 이어졌다.

광주시 지역내 총생산(GRDP)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율이 2017년 대비 2019년도

에 8.26%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4.34%), 광역시 평균(3.56%)에 비해 높은 성장률이다.

1인당 GRDP 성장률 역시 2017년 대비 2019년이 8.37%로, 전국 평균(3.70%), 광역시 평균(1.35%)을 훨씬 상회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어려운 상황에도 경제성장률은 2017년 1.3% 대비 2019년도에 2배 이상 상승한 2.8%로 전국 평균과 광역시 평균인 2.1%보다 높았다.

이같은 성과는 그동안 광주시가 다른 시도보다 한발 앞서 시작한 인공지능(AI)을 연계한 광주형 3대 뉴딜 정책과 함께 관광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에 신기술을 융합하면서 매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

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산업전략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는 지난 2019년 5월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혁신성장'을 목표로 11대 대표 산업을 선정된 뒤 2년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광주시의 3대 추진전략인 노사상생도시, 인공지능, 일자리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육성한 그동안의 성과와 정책방향,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역산업의 확장을 위해 "광주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정부 대형 국책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공약과 제5차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의로운 도시가 잘사는 풍요로운 광주 건설로 매진한 결과 광주 공동체의 노력으로 짧은 시간, 광주의 미래 지도가 바뀌고 있다"면서 "11대 대표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돌아오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시장, 우즈벡 고용노동부 장관과 환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4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우즈베키스탄인 근로자 광주쉼터 개소식 행사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후사노브 노직 바흐티오로비치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175명 승진 의결...첫 여성 이사관 탄생

박항 복지건강국장 2급 승진

광주시 개정 이래 첫 여성 이사관(2급)이 탄생했다.

광주시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급 1명, 3급 2명(직무대리 1명 포함), 4급 13명(직무대리 3명 포함), 5급 37명 등 175명을 승진 의결했다.

박항 복지건강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적 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급으로 승진했다.

광주시 첫 여성 이사관이 된 박 국장은 의사 출신, '방역 사령관' 등 공통점으로 지역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비교되고는 했다.

박 국장은 한국전력 협력관, 문화관광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지내며 행정 경험을 다졌다. 3급으로는 박상백 예산담당관, 이정석 비서실장이

승진했다.

박 담당관은 지방 재정 확대를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국비 3조원 시대 가시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실장은 최고참 서기관으로 도시철도 2호선 시민 공론화, 시장 정책보좌, 대내외 소통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대책 추진, 사회서비스원 등 복지인프라 구축 등 주요 현안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를 승진시켰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김중화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다음 달 1일 자 4급 이상 간부급 전보, 같은 달 19일까지 5급 이하 전보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며 "민선 7기 후반기 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영암 삼호산단 '뿌리산업 특화단지' 됐다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전남 4개 뿌리산업 단지 지정

영암 삼호 일반산단이 조선과 용접·표면처리 관련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됐다.

뿌리산업이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 정부는 이들 뿌리산업 관련 기업이 집적화된 지역을 지정해 단지 내 공동시설과 공동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삼호산단 특화단지 지정은 전남 주력산업의 한 축인 조선산업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

이 맞춰졌다.

조선산업의 주류를 이루는 용접·표면처리 관련 협력사를 위한 공동 물류창고 구축, 디지털 용접기 공동 활용, 현장 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기 위한 국비 지원의 기반틀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로 조선산업의 고도화가 기대된다.

국비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산업부 공모 참여를 위해 하반기부터 공모 준비에 돌입한다. 2022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지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의 상생 지원으로 민간 부담금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전남에는 순천 해룡산단, 영암 대불산단, 광양 익신산단, 영암 삼호산단 등 총 4개의 뿌

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순천 해룡산단은 지난 5월 기업 공동혁신활동 지원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술·경영 정보 교류, 특허 관련 전문가 컨설팅, 산학연 연계 기술 지원 등 뿌리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박우욱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암 삼호산단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이 서남권 주력산업인 조선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사업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월부터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해피 아이맘 간호사 가정 방문 모유 수유·신생아 수면 관리

다음달부터 광주에서 산모, 신생아를 위한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가 시작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문 교육, 실습을 수료한 간호사나 조산사들로 구성된 '해피 아이맘 건강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유방 관리, 모유 수유 등을 돕고 신생아 수면을 관리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고 출산 후 120일 이내 산모다.

광주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하루 4시간씩, 모두 5차례 나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가격은 시간당 2만원이며, 가구 소득 수준

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중위 소득 51~140% 가구의 경우 1만4000원을 지원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은 6000원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광주 아이키움 홈페이지나 여성가족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의 지원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는 기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